

북한에 허가받은 공식 시장만 436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북한개발연구소 공동조사 보고서 “김정은 경제부활 핵심 열쇠... 신흥자본가 ‘돈주’ 역할 주목”

북한에서 정부가 허가한 공식 시장이 약 436개에 이르며 날로 확산하는 시장 네트워크와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금융업자들이 북한 경제부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공개한 ‘시장: 북한에서 사(私)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CSIS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만든 북한경제 연구기관인 북한개발연구소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1990년대 대규모 기아 사태를 겪었던 ‘고난의 행군’ 당시 시장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북한 전역에서 상품과 음식,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식 시장과 비공식 시장(장마당)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북한은 시장 거래에 일종의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약 5680만 달러(약 63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의 규모는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것은 2800제곱피트(약 260㎡) 정도지만, 청진시에 있는 가장 큰 시장은 25만 제곱피트(약 2만3225㎡)에 이른다. 북한에서 시장을 주 무대로 활

동하면서 돈을 융통하는 업자는 ‘돈주’ 또는 ‘돈주인’으로 불린다. 북한의 사금융은 돈주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들은 무역과 관광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흥자본가이며 대출,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처럼 북한에서 확산하는 시장 네트워크가 경제를 되살리라는 김정은 국

무위원장의 특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난 ‘돈을 가진 엘리트’ 계층은 정권도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로 압박받는 북한 당국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원 역할을 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과의 적절한 핵 협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경제건설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핵 무

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경제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노선’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앞서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와 한국에 있는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에서 공식 인가를 받은 시장을 각각 480개, 387개로 추정했기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장에는 최소 6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아파트 화재 어린이 등 8명 사망
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미국 시카고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갓난아기 등 어린이 6명을 포함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슬

/연합뉴스

北 추방 일본인 중국 도착... 日 정부 “건강체크 중” 밝혀

북한이 구속했다가 석방했다고 발표한 일본인 관광객이 27일 중국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이 일본인 관광객이 귀국을 위해 경유지인 중국에 도착했다”며 “일본 정부가 중국 내에서 구속 당시 상황 조사 및 건강 체크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을 이유로 더 이상의 추가 언급은 피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밤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한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공화국의 법을 위반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일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고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나 추방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일본인 관광객은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씨로 추정된다. 30대 남성인 그는 이달 초순 북한을 방문했다가 남포에서 구속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스기모토씨는 중국에 거점을 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열차 편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제작 업무를 하는 스기모토씨가 북한 여행 도중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게임에 졌다고 총기 난사... 2명 사망

미 플로리다주 게임대회 참가자 경기 도중... 본인도 목숨 끊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던 게임 대회 참가자가 경기 도중 총기를 마구 쏘아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 세인트존스강변의 복합쇼핑몰 ‘더 잭슨빌 랜딩’에 있는 ‘시카고 피자 레스토랑’ 내의 GLHF 게임 바에서 갑자기 1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

당시 게임 바에서는 온라인 풋볼 비디오 게임인 ‘매든 19’ 토너먼트 대회의 지역 예선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임 대회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잭슨빌 카운티의 마이크 윌리엄스 경찰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 3명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라고 말했다.

이들 외에 9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옮겨졌으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친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볼티모어 출신의 24살 남성 데이비드 카츠로 확인됐다. 카츠는 이 게임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으로 최소한의 권총을 사용했다고 윌리엄스 국장은 밝혔다. LA타임스는 한 대회 참가자를 인용해 용의자가 이날 게임에서 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7〉 환관 정원진

정원진(程元振, ?~764)은 당나라 숙종, 대종 때의 실세 환관이다. 숙종의 측근인 환관 이보국을 제거하고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 권력을 휘둘렀다. 이보국, 어조은, 구사량 등과 함께 당 왕조를 망가뜨린 대표적 환관의 한 명으로 평가된다.

정원진은 현재 섬서성 삼원현에 해당하는 삼원 출신으로 어려서 환관으로 궁궐에 들어갔다. 이보국의 신임을 얻어 궁전 안의 공수를 지휘하는 책임자인 내사생사가 되었다. 이보국이 숙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궁중의 금군(禁軍)을 장악하자 사실상 인연자가 되었다. 숙종이 병환으로 죽고 태자 이예가 대종으로 즉위했다. 이보국은 스스로를 대종 즉위의 공신으로 생각해 말할 수 없는 횡포를 부렸다. 공개석상에서

과거 그가 정략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참소했다. 내진은 파주로 유배되고 가는 도중 죽음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변진에서는 모두 정원진에게 이를 갚았다. 동화절도사 이회양도 참소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63년 토변이 장안을 침공했다. 조정은 용왕 이광을 관내원수로 광자의를 부원수로 삼아 이를 막게 하였다. 변경에서 급보를 조정에 알려왔지만 정원진이 이를 중간에서 막아 황상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토변이 위수를 건너 장안으로 쳐들어오자 군사를 보낼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막았다. 금군이 모두 도망쳐 흩어졌고 황상은 급히 장안을 탈출해 섬주에 있는 어조은의 군대로 도피했다. 장안이 철저히 파괴돼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참고와 마을을 약탈하고 민간의 집을 불질러 장안이 텅비게 되었다. 정원진이 표기대장군·판원수행군사

숙종 최측근 이보국 제거 실권 장악

황제에게 “황상은 다만 궁중에 거처하시고 밖의 일은 이 늙은 노복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만방자했다. 이보국의 전횡에 비룡부사 정원진이 불만을 커져갔다. 대종은 정원진을 부추겨 이보국 제거에 나섰다.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정원진은 이보국의 행군사마와 병부상서직을 내놓게 하였다. 궁밖에서 살도록 했고 중서령을 파직하고 작위만 박육으로 올려 주었다. 이보국의 불평을 전해들은 정원진은 그를 용서치 않았다. 자객을 이보국의 집에 보내 토막내 살해했다. 머리와 한쪽 팔이 없어졌다.

이보국 사후 금군이 그의 수종으로 들어갔다. 762년 정1품인 표기대장군 겸 내시감이 되었다. 대장군 광자의에 대한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시기해 자주 황상에게 참소했다. 이에 광자의는 스스로 표문을 올려 부원수·절도사직을 해직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환관 어조은과 공모해 대장군 이광필을 여러 차례 모함하였다. 잦은 참소로 결국 이광필과 그의 동생 이광의가 파직되었다. 광자의와 함께 당 군대의 중추인 이광필의 파직은 조정에 커다란 충격 을 몰고 왔다. 황상은 용왕 이광을 천하병마원수로 삼고 광자의를 부원수로 삼으려 했으나 정원진과 어조은이 이를 막았다. 763년 내진이 재상이 되자

마로 군권을 장악하고 장군들 가운데 공로를 세운 사람을 참소하고 질투하였다. 토변의 침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안을 내준 것도 이광필 등 장군들이 그가 궁중에 있는 것을 꺼려 군사 모집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무서워해 누구도 감히 황제에게 직언하지 못하였다. 태상 박사 유향이 감히 상소문을 올려 주장하기를 “반드시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시려면 정원진의 머리를 베고 말을 달려서 천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황상이 일찍이 그가 자신을 보호하였던 공로 때문에 감히 처벌하지 못하였다. 정원진이 이보국을 도와서 장황후를 죽여 대종이 즉위하는데 공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 군신들이 하나같이 그를 파면시키든지 주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763년 11월 그의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아서 고향 삼원으로 돌려보냈다. 764년 장안이 수복되어 대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여자의 복장을 하고 사사로이 장안으로 돌아와 다시 기용되기를 도모하였다. 결국 몇몇 관리들과 내통해 정변을 꾀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황제는 반역죄로 그를 진주로 추방했는데 그는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이후 조정의 실권은 환관 어조은에게 모두 돌아갔다.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주택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